

장애인권리조약 여성조항 신설 난항
국제 엔지오 지지세 그렇게 크지 않아 난감
김미연, 김광이, 최경숙씨 등 긴급 투입 대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1-29 09:13:20

갈라고스(에쿠아도르) 특별위원회 의장은 개막선언과 아울러 뉴질랜드의 맥카이 대사에게 의사진행을 알김으로서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조항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4차 회의에서 미결된 정부간 조항검토가 연이어 계속되었는데, 15조까지 NGO(비정부민간단체)는 발언권이 없고 참관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초반 분위기는 다소 긴장감과 치열함이 떨어져 보인다.

각국 정부대표는 조약에서 제시된 내용이 정부에게 부담되는가라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7조의 차별금지과 관련하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special measures)"라는 용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나라들이 있었고, 제9조의 법 앞의 평등과 관련하여,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이 모든 장애인에게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장시간 토론이 이루어 졌다.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이익섭 회장(한국DPI)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각국 정부대표들의 발언이 장애인문제의 본질과 장애인권리조약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다고 인정됐던 권리들을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있어 제한과 한계를 언급하는 것은 권리조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익섭 대표는 조항별로 큰 변화를 주지 말고 워킹그룹 초안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발언을 하였다.

이번 회의의 첫 주간은 조항 15까지 정부만의 의견조율이 있고, 다음 주부터는 조항 16 이후에 대해 엔지오가 참가하는 전체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엔지오와 정부 간의 열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정부와 엔지오 대표들은 별도의 여성조항 신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여성조항의 별도신설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초안까지 제시한 바 있어, 한국이 가장 특징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사안임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대표를 설득하고 있다. 한국의 엔지오 대표단들도 여성조항이 별도조항으로 채택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우려 속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여성 단체의 관련자들을 긴급 추가 투입, 장애관련 국제 엔지오 그룹을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엔지오의 공동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특히, 여성조항 신설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줄 알았던 국제엔지오들이 실제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지지세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특별위원회 회의 하루 전날(23일) 열린 국제장애실무대표단회의(일명 IDC)에서 유럽의 엔지오들은 장애여성 별도조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엔지오들도 장애여성문제의 심각성과 독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져야할 조약에 특정집단의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조약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한국이 연일 엔지오그룹과의 미팅을 가지면서 집요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별도 조항을 최소화 하여 만들고 전체 각 조항에 장애여성 관련 내용을 분산, 배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 또한 별도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유럽 엔지오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여성조항문제가 한국의 활약으로 부각되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인 반면,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아 한국대표단의 고군분투가 안쓰러워 보일 정도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최경숙 공동대표, 김광이 정책위원, 극단 끼판의 김미연 대표는 설득력 있는 한국제안을 만들기 위해 연일 분주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일단 다음 주 제15조항 이후의 논의에서 장애여성 별도조항의 신설을 다시 강력하게 제안하고, 이 문제를 다음 특별위원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27일 저녁에 한국은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이번 특별위원회에 참가한 각국 정부와 엔지오 대표단을 초청하는 리셉션을 가졌다.<글=김동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뉴욕/김동호 초안위원 (ablenews@ablenews.co.kr)